

# 전주시 올해 농사 풍년 이뤘다

## 국내·외 각종 평가서 잇따라 수상... 대통령상 2회 포함 30여개 성과

전주시가 올 한해 국내외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면서 사업과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결과, 올 한해 각종 정부 평가에서 최고영예인 대통령상 2회를 포함한 30여개의 의미 있는 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민들과 공직사회가 마음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다.

특히, 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복지정책 평가와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각각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평가됐다.

먼저, 대통령상의 경우, 지난 4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국내 지자체 중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또 올해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제19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시민이 만드는 미래, 에너지디자인 3040'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에너지정책을 발표해 대통령상(대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의 경우, 시는 국내 유일의 죽보 있는 사체인 전주완본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열린 '제571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장관상의 경우, 시는 지난 4월 2016년도 정부3.0 평가에서 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대한민국 국토경관 디자인대전에서는 녹색예술거리 나눔 숲(전북대 신정문~구정문)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는 미래먹거리인 드론산업과 탄소 소재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하고 최첨단 레저스포츠산업으로 보급·육성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산림청 주관 '2017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전주역 앞 '찾마중길'과 호프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으로 최우수 기관(1등)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2017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부문 평가 △국토교통부 2017 대중교통 시책평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자정제 이용활성화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정책평가 등 다수의 정부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됐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주시를 최우수수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주민의 삶의 질 조건과 문화기반시설 함유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도 했다.

전주시의 정책은 올해 세계에서도 주목 받았다. 시는 지난 8월 '찾마중길 조성사업 우수사례'로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인간주거환경협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시경관분야 최고의 국제상인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영화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비평매체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시는 올해 △국회 2017 빛물 자원화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2016 옥외광고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7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사)한국소셜리더십진흥회의 2017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부문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실적을 거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민선 6기 핵심가치인 사람·생태·문화를 토대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전주시민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산림청 주관 '2017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전주역 앞 '찾마중길'과 호프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으로 최우수 기관(1등)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2017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부문 평가 △국토교통부 2017 대중교통 시책평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자정제 이용활성화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정책평가 등 다수의 정부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됐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주시를 최우수수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주민의 삶의 질 조건과 문화기반시설 함유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도 했다.

전주시의 정책은 올해 세계에서도



전북 체육대상 시상식. 19일 전주의 한 웨딩홀에서 '2017 전북도 체육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체육대상을 거머쥔 이리중 학교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교육청, 교육부 장관 표창 나창운 교수 '자랑스러운 동문상' 영예

## 교육부 학부모 교육참여 공모전서 우수사례 선정

## 에크런대학교, 고분자 분야 연구 탁월한 업적 인정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한 2017년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총 7곳이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특색을 살린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및 자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 활성화 분야에서 군산문화초, 전주유화학교,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동아리 지원 분야에서 백암초, 남원하늘중,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회 학교참여 분야에서 봉서초가 수상했다. 특히 전북 학부모지원센터는 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하늘중 학부모회는 학부모 동아리를 구성해 경로당 사람의 밥상 나눔, 우리 동네 알아보기 활동, 학교 정화활동,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반찬 지원, 교육공동체 수업 나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봉서초 학부모회는 학교와 소통하는 학교교육활동 모니터링,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부모회 분과 활동, 봉서나눔 바자회, 봉서 가족과 함께하는 숲 속 캠핑 대축제, 독서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 학부모 교육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학부모회의 우수한 활동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교 및 지역 차원의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모든 교육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민근 기자

나창운 전북대 교수(고분자나노 공학과·사진)가 미국 에크런대학교(University of Akron) 고분자공학과가 선정한 '2018년 자랑스러운 동문상(Distinguished Alumni Award)' 수상자로 결정됐다.

나 교수는 1995년 에크런대학교 공학박사학위 취득 후 10여 년간 타이 어연구소에서 산업체 연구 경험을 쌓았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고분자나노복합소재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동안 WCU(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와 BK21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국제학술지에 147편(총 피인용수 3,000여 회, H-index 36, 평단 20회 평균인용), 국내학술지에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외 특허 10여 건을 출원 및 등록했으며, 국제학술회의와 연구기관 초청강연 50여 회를 포함해 총 420여 회 논문발표를 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 왔다.

나 교수는 그동안 60여 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 이들은 대부분 국내외 산업체와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BK21 Plus 지원 '감성터치 고분자복합소재 연구팀'의 팀장으로서 같은 학과 정광운 교수, 홍원래 교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에크런대학교는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 교육과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다양한 화과들이 매년 탁월한 업적을 이룬 동문을 각 1명씩 선정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시상하고 모교에서 기념 강연을 개최한다. 시상식은 내년 5월 9-11일 에크런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나창운 전북대 교수(고분자나노 공학과·사진)가 미국 에크런대학교(University of Akron) 고분자공학과가 선정한 '2018년 자랑스러운 동문상(Distinguished Alumni Award)' 수상자로 결정됐다.

# 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8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는 성인들에게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한 기본생활기능과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에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신규기관은 5개 기관으로 남원시 평생학습관, 정읍 올림야학교, 진안읍사무소,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마실정촌학교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학습자들은 단계별 1년 과정으로 1단계(초등학교 1·2학년 수준), 2단계(초등학교 3·4학년 수준), 3단계(초등학교 5·6학년 수준)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원장(교육국장 김경호)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도가 학력취득에 어려움이 있던 비문해자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가 되길 바라며,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신규기관을 포함하여 도내 15개 기관에 363명의 학습자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로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